

개도국 지역이슈 리포트

【지역이슈분석 2012-10】

2012. 5. 15.

인도 금융시장의 최근 동향과 국내 금융기관의 진출 전략

목 차

I. 검토 배경	1
II. 인도 금융시장 부문별 동향	2
III. 외국계 금융기관의 인도 금융시장 진출 현황	8
IV. 국내 금융기관 진출 확대 전략	11



▣ 인도 금융시장은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에 따른 자금조달 확대는 인도의 빠른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인도 정부는 외환위기 발생, 금융시장 대외 개방 등에 대비하여 1998년부터 금융시장 개혁을 단행하여 금융시장 건전성 제고 및 규모 확대를 도모하였으며, 외국 자본의 유치 확대를 위해 구조 개혁 및 진입 규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인도 금융시장의 최근 동향과 외국계 금융기관 및 투자자 진출 현황 분석을 통해 국내 금융기관의 진출 확대 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I. 검토 배경

□ 인도 금융시장의 오랜 역사와 금융시장 개혁

- 인도의 금융시장은 18세기에 동인도회사가 인도를 통치할 당시부터 형성되었으며, 19세기부터 뭄바이, 아마다바드, 캘커타에 증권거래소가 설립되었고 19세기 후반 200~250명 정도의 주식 브로커가 뭄바이에서 활동하는 등 이른 시기에 발전된 금융시스템이 구축되어 경제성장을 견인하였음.
- 그러나 정부의 통제에 따른 폐쇄적인 시장 체제와 자금 조달 기능의 제한적인 운용 등으로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저하됨에 따라 금융시장 발전이 다른 개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정체되었음.
- 1991년 초에 발생한 거시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인도 정부는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특히 민간부문 투자 촉진을 위해 다양한 자금원 확보가 필수적임을 인식하여 금융시장 개혁을 추진함.
 - 1991년 이후 민간부문의 은행 설립이 다시 허용되었고 외국계은행의 진입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은행 간 인수·합병의 기준을 완화하여 은행시스템 변화를 유도함.
 - 증권 및 채권 부문에 정부의 통제를 철폐하고 인도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 SEBI)에 법률적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국채시장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국채관리정책을 추진함.



□ 금융시장 개혁 지속과 자금 수요 증가 등으로 시장 확대

- 경제 규모에 비해 인도 금융시장 규모는 신흥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며, 금융시장이 기업의 자금 조달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아 1991년부터 정책 당국의 금융시장 개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
 - 일관성 있는 광범위한 금융시장 개혁을 통해 금융기관에 만연해 있는 관료주의와 국영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인도는 내수 확대 및 IT산업 성장 등으로 2003년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하며 개인 및 기업의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당국의 해외자본에 대한 개방 확대 방침에 따라 국내·외 금융기관의 인도 진출 및 현지 규모 확대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II. 인도 금융시장 부문별 동향

1. 은행부문

□ 경제발전에 따른 은행산업 성장

- 인도는 2003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을 제외하고 8~10%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른 금융 수요 증가와 당국의 금융시장 개혁에 힘입어 은행산업은 연간 20%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함.
 - 2001년 인도 은행산업의 총자산 규모는 약 2,771억 달러였으며, 2011년에는 1조 2,676억 달러로 10년 사이에 약 4.6배 증가함.
 - 이는 미국 은행시장의 10%, 우리나라 은행시장의 83% 수준으로 경제 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임.



<표 1> 인도 은행산업 주요 지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f
총자산 (억 달러)	8,628	8,569	10,334	12,756	12,676	16,328
총자산/GDP (%)	68.2	74.7	73.4	72.4	73.8	73.6
총예금 (억 달러)	6,456	6,451	8,096	9,905	9,675	13,118
1인당 GDP (달러)	880	963	1,075	1,311	1,501	1,671
1인당 예금액 (달러)	549.9	541.7	670.3	808.8	779.3	1,042.5
대출/예금 (%)	82.1	81.2	79.5	78.8	82.1	78.0

자료: 인도중앙은행, BMI.

- 은행산업 총자산은 국내총생산 대비 1999년 42.5%에서 2011년 73.8%로 집계되고 있으며, BMI¹⁾에 따르면 2012~16년 중 연평균 2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2016년에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높은 저축률에도 불구하고 1인당 예금액 낮은 수준

- 인도는 2010년 기준 GDP 대비 30% 정도의 높은 국내저축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투자자들이 은행 예금 이외에도 비은행 금융자산 투자 등으로 부를 축적함에 따라 1인당 예금액은 낮은 편임.
 - 2011년 성장세 둔화에 따라 1인당 예금액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전년 대비 33.8% 증가한 1,042.5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²⁾
- 중산층의 확대를 바탕으로 민간 저축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금에 대한 유인 확대가 필요함.
 -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RBI)은 2011년 5월에 저축예금에 대한 이자율을 3.5%에서 4%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연평균 8%대의 높은 경제성장률 지속과 금융시장 개혁에 따른 규제 완화로 2012~16년 중 연평균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1)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는 국가위험도, 경제, 산업, 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재편집하여 뉴스, 분석보고서, 통계 등의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는 전문 정보제공 기관임.

2) 2011년 기준 인도의 1인당 예금액 수준은 미국의 2.1%, 우리나라의 2.8%임.



□ 국영은행의 낮은 경쟁력

- 인도 내 은행은 정부의 지분 소유에 따라 국영은행³⁾, 민간은행, 그리고 외국계 은행으로 분류됨.
 - 금융시장 개혁 이전인 1980년대에 국영은행은 은행시장 총 자산의 93%, 전체 지점의 90%를 차지하였으나, 1990년 이후 신규 은행의 시장 진입장벽 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 이에 따라 2011년 9월 말 기준 국영은행이 은행산업 전체 예금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은행과 외국계 은행은 전체 예금 중 각각 21.4%와 4.6%를 차지함.
 - 전체 여신규모 중 73.7%는 국영은행이, 21.1%는 민간은행이, 그리고 5.2%는 외국계 은행이 차지함.
- 은행산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영은행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여전히 남아있어 민간 및 외국계 은행에 비해 경쟁력이 저하됨.
 - 국영은행의 경우 보유자산 운용에 자율성이 제한되어 수익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정부채권 의무 보유비율이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채권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
 - 반면 금융시장 개혁으로 새롭게 진입한 민간 은행들은 효율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며 경쟁 확대를 촉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은행들의 순이자마진(Net Interest Margin: NIM)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3) 국영은행(Public Sector Banks)은 인도상업은행(State Bank of India: SBI) 및 계열 은행에 해당되는 국립은행과 국유은행(Nationalized Bank)을 포함함.

4) 순이자마진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산을 운용하여 창출한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차감한 뒤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 수치로 금융기관의 수익력을 나타내는 지표임. 순이자마진에는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채권 등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 포함됨.



2. 증권 및 채권 부문

□ 금융시장 개혁에 따른 증권시장 현대화

- 과거 인도의 증권 부문은 자본발행통제국(Controller of Capital Issues: CCI)을 통한 주식발행시장에 대한 지나친 통제로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이 매우 높아 그 활용도가 높지 않았음.
 - 또한 주식 시장에 강력한 질서유지체제가 갖춰지지 않아 내부자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등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임.
- 1994년 증권계약규제법 정비를 통해 인도증권거래위원회에 법률적 권한을 부여하고 주식시장 규제 수단인 자본발행통제국을 폐지하는 한편, 전국 단위의 현대적 증권거래소인 국립증권거래소(National Stock Exchange: NSE)를 개설하여 주식 거래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함.
- 특히, 2008년에 도입된 직접시장출입(Direct Market Access: DMA)⁵⁾ 시스템은 외국인 기관투자자(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FII)⁶⁾가 대량 거래를 낮은 비용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인도증권거래위원회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됨.
 - 2011년 말 기준 외국인투자 전체 거래 중 40~50%가 직접시장출입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보임.
- 또한 2010년에 외국인 증권 투자에 대한 주식과 채권의 비율(7:3) 규제를 폐지하고, 외국인투자의 채권투자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양적 투자제한을 완화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의 정부채 투자한도는 2010년 4월에 기존 3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회사채 투자한도는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확대되었음.

5) 증권사 브로커가 없이 주문 수신부터 체결보고, 위험관리까지 전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는 온라인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수수료가 낮고 주문 속도가 빠르며 시스템 연결성이 좋은 장점이 있음.

6) 인도 주식시장의 외국인 기관투자자(FII)는 인도증권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은 뒤 등록된 은행, 연기금, 보험사 등을 포함하며, 투자한도는 주식, 채권 등의 유형별로 제한됨.



□ 채권시장 제한적 기능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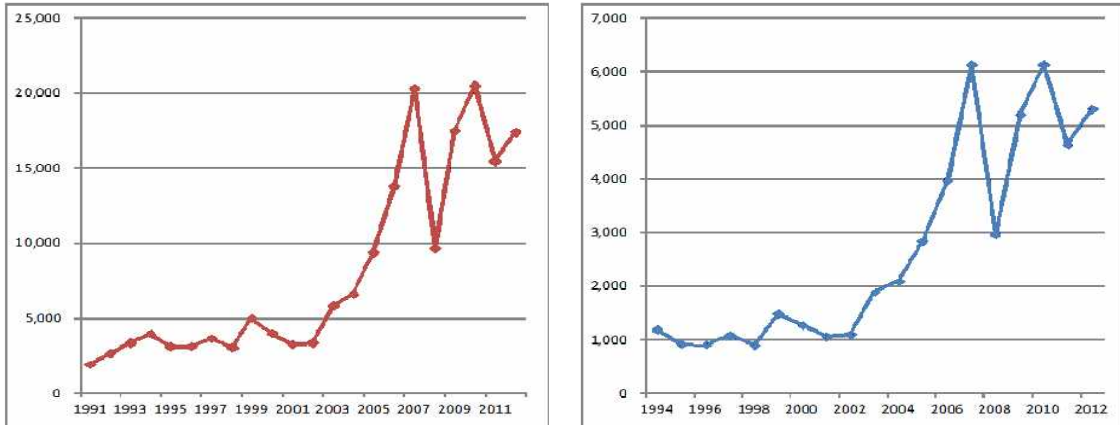
- 금융시장 개혁 이전에 채권시장은 중앙정부의 엄격한 통제 하에서 정부의 재정적자 보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주는 기능만 수행하였음.
 - 1992년부터 국채관리정책을 통해 시장 효율성을 높여 채권 가격 및 이자율 수준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정부가 채권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음에 따라 은행, 주식시장에 비해 개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
- 정부의 제12차 5개년 계획 수행을 위해 인프라 투자에 1조 달러 이상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함에 따라 채권시장에 자본 유치를 확대하여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국채의 거래가 전체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등 채권시장의 발전이 미진함에 따라 회사채의 발행과 유통 활성화를 통한 채권시장 활성화가 필요함.

□ 경제 성장과 외국인투자 확대로 주식시장 성장세 지속

- 빠른 경제성장으로 투자가 확대되어 주식시장 시가총액 규모는 2010년 3.2조 달러를 기록하여 2004년 대비 4.3배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비중 역시 2004년 100%를 넘어선 이후 2008년을 제외하고 빠른 증가세를 기록하여 2010년 말 기준 193%를 기록함.
 - 인도 주식시장의 대표적 지표인 뭄바이증권거래소(Bombay Stock Exchange: BSE)의 SENSEX 지수는 2003년부터 빠르게 증가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인 2007년에는 전년 대비 47.1% 증가하였으며, 국립증권거래소의 S&P CNX NIFTY 지수 역시 같은 기간 동안 54.8% 증가함.
 - 글로벌 금융위기로 투자가 급감하여 2008년에 두 지수 모두 2005년 수준으로 하락하였다가 다시 회복하였으며, 2012년 들어 주요국 재정 위기의 부정적인 충격을 극복하고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1> BSE, NSE 지수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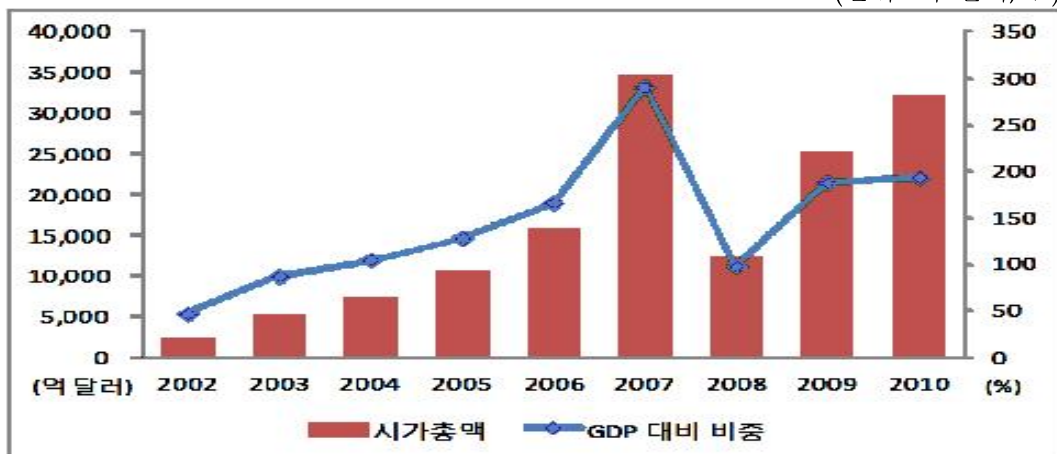
주: 2012년 수치는 3월 말 기준임.

자료: 뭄바이증권거래소 SENSEX 지수 및 국립증권거래소 S&P CNX NIFTY 지수 데이터.

- 한편 외국인 기관투자자 범위가 보험회사, 외국 정부기관 및 외국 중앙은행까지 확대되는 등 정부의 규제 완화로 해외자본 유입이 크게 늘어나 주식시장 규모 확대에 기여함.
 - 인도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순 투자규모는 2003/04 회계연도 100억 달러에서 2010/11 회계연도 322억 달러로 약 3.2배 증가하였으며, 누적 투자규모는 같은 기간 동안 259억 달러에서 1,216억 달러로 4.7배 증가함.

<그림 2> 주식시장 시가총액 규모 및 GDP 대비 비중 추이

(단위: 억 달러, %)



주: 인도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뭄바이증권거래소와 국립증권거래소 수치를 합한 것임.

자료: World Federation of Exchangers.

7) 인도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임. 따라서 2003/04 회계연도는 2003년 4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Ⅲ. 외국계 금융기관 인도 금융시장 진출 및 투자 현황

1. 은행부문

□ 외국계 은행의 시장 점유율 확대 노력

- 인도 금융시장의 높은 성장잠재력을 감안하여 외국계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신규 진출 및 지점 확대에 나서고 있음.
- 인도 은행시장에는 2007년 10월 말 기준 29개의 외국계 은행이 273개 지점을 기반으로 진출해 있었으며, 2011년 8월 말 기준 외국계 은행 수 38개, 지점 수는 총 321개로 증가함.⁸⁾

<표 2> 인도 소재 외국계 은행 현황^{주1)}

은행명	국가	지점수(개)
Standard Chartered Bank	영국	94
HSBC	영국	50
Citibank	미국	43
The Royal Bank of Scotland	스코틀랜드	31
Deutsche Bank	독일	15
DBS Bank	싱가포르	12
BNP Paribas	프랑스	9
Barclays Bank	영국	9
Credit Agricole Bank	프랑스	6
Bank of America	미국	5
Bank of Nova Scotia	캐나다	5
Shinhan Bank	한국	3
Bank of Tokyo-Mitsubishi	일본	3
State Bank of Mauritius	모리셔스	3
기타 ^{주2)}	-	33
합계		321

주1) 2011년 8월말 기준

주2) 지점수가 3개 미만인 은행

자료: 인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8) 우리나라에는 총 39개의 외국계은행이 진출해 있으며, 중국의 경우 총 74개가 진출하였음.



- 2010년 9월~2011년 8월 중 오스트레일리아은행(National Australia Bank), 중국공상은행(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우리은행(Woori Bank) 등 총 4개의 은행이 인도중앙은행으로부터 지점 개설 승인을 받았으며, 스미토모은행(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은 사무소 개설 허가를 받은 상태임.
- 인도 진출 외국계 은행 중 가장 규모가 큰 두 은행(Standard Chartered Bank, HSBC)이 영국계이며,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은행(Citibank)은 미국계임.
- 금융당국은 외국계 은행 진출에 대해 건별로 허가를 주는 형식으로 신규 진입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외국계 은행의 신규 지점 개설 수 제한을 완화하는 등 은행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인도 자국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 법인 형태의 외국계 은행 진출만을 허용하고 있고, 외국계 은행의 현지 은행 인수를 제한하는 등 제약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 외국계 은행이 현지 은행보다 영업성과 양호

- 선진 시스템을 활용하는 외국계 은행들의 영업실적이 인도 은행 전체 평균보다 훨씬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음.
 - 2010/11 회계연도(2010년 4월~2011년 3월)중 외국계 은행들의 순이익은 62.8% 증가하여 인도 상업은행 부문 전체의 순이익 증가율인 23.2%를 크게 상회하였고, 총자산순이익률도 1.74%로 인도 상업은행 전체 1.1% 보다 약 1.6배 정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 2011년 3월 말 기준 인도 상업은행 전체 지점(88,203개) 중 외국계 은행 지점의 비율은 0.4%에 불과하나, 예금 및 대출의 시장점유율은 약 4.5% 정도로 높은 편임.

□ 국내 주요은행 진출 확대 노력

- 신한은행은 1996년에 상업은행 중 최초로 인도 은행시장에 진출하여 뉴델리, 뭄바이, 벨로르(첸나이 인근)에 세 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이 그 뒤를 이어 2012년 4월에 첸나이 사무소를 지점으로 전환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음.

-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뉴델리에서 사무소를 운영하며 지점 전환을 통한 진출 확대를 모색하고 있으나, 인도 정부의 지점 전환 승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⁹⁾
- 상업은행 외에 한국수출입은행은 현지 진출기업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뉴델리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은행은 텔리에 주재원을 파견하여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음.

2. 증권 및 채권 부문

□ 증권 및 채권시장 해외자본 유입 증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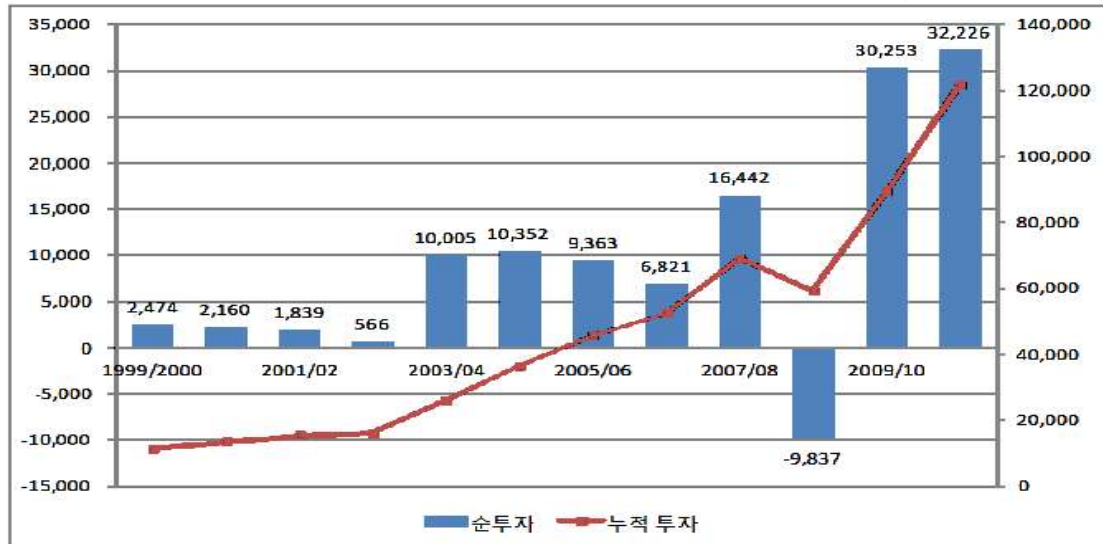
- 1992/93년 외국인 투자자의 인도 금융시장 진입 허용 이후 외국인 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09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2011년 3월 말 기준으로 인도증권거래위원회에 1,722개의 외국인 기관투자자(FII)가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 계좌(sub-account) 수는 5,686개임.
 -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순매수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11 회계연도에 전 회계연도 대비 6.5% 증가하여 사상 최대치인 322억 달러를 기록함.
 - 이에 따라 누적 투자 규모는 2009년부터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2011년에 1조 2,000억 루피를 넘어섬.
- 뮤추얼펀드의 경우 2010/11년 중 4개가 신규로 등록되어 총 51개(민간 부문 46개, 공공 부문 5개)가 인도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음.

9) 우리은행의 경우 2010년 6월에 첸나이 사무소의 지점 승격을 신청하여 승인 확정 및 영업 개시에 이르기까지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었음.



<그림 3> 외국인 기관투자자 순투자 및 누적투자액 추이

(단위: 천만 루피)



자료: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

IV. 국내 금융기관 진출 확대 전략

1. 인도 금융시장 성장가능성과 정부의 규제 완화

□ 금융수요의 지속적 확대로 성장가능성 풍부

- 높은 성장률 지속과 중간소득층의 확대¹⁰⁾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Private Banking) 및 소매금융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동 부문에 대한 사업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 현지 및 외국 은행들은 인도의 발달한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ATM 도입 확대 등 기술 혁신을 통한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음.
- 우리 은행들 또한 모바일 banking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선진 금융서비스 부문에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10) 맥킨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중산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5%에서 2015년 20%, 2025년 41%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기업의 자금 조달 수요 및 인수합병(M&A) 시장 역시 확대되고 있어 회사채시장 성장과 그에 따른 외국인투자 증가가 예상됨.

□ 국영은행 민영화 추진 등 규제 완화 전망

- 인도의 국영은행들은 지점 수와 직원 수가 많아 인건비 비중이 높고 노동생산성은 낮은 수준이며, 은행 수가 많아 개별 규모가 작은 편이므로 국영은행 통폐합 또는 민영화, 민간은행의 국영은행 인수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규모의 경제 실현이 필요함.
- 인도 내 은행들에 적용되는 우선부문대출제도¹¹⁾ 등 자금의 수요·공급 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우선부문대출제도로 인해 부득이하게 우량기업에 대한 대출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자금조달 기능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계 은행에도 동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인도 시장 진출시 이를 감안해야 함.
- 경제 성장에 따른 인도 기업들의 자금 수요 확대와 인프라 개발 등을 위한 외국인투자 수요 증가, 그리고 외국계 금융기관의 유입을 통한 기술 이전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인도 금융시장 진입 장벽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2. 시장상황 고려한 진출전략 필요

□ 인도 정부의 정책 변화 주시

- 인도 집권당인 국민회의당이 2012년 3월 5개 주에서 이루어진 총선에서 야당에 크게 패함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기조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향후 금융시장 관련 정책 변화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11) 우선부문대출제도는 인도에서 영업하는 은행들이 당국에서 지정한 우선부문(농촌, 중소기업, 교육, 주택, 사회적 약자, 수출금융 등)에 40% 이상을 대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외국계 은행의 경우 동 부문에 32% 이상을 대출해야 함.



- 특히 통화 당국의 정책 운용기조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음.
 - 인도중앙은행이 4월 17일 경기 둔화 해소를 위해 기준금리를 기존의 8%에서 시장의 예상보다 큰 폭인 50bp 인하하여 7.5%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대출이자 하락에 따른 금융수요 확대 및 투자 활성화가 기대됨.
 - 한편 5월 10일에는 루피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인도 기업이 취득한 외화 수입의 절반을 의무적으로 루피화로 바꾸도록 하는 등 반시장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인도 상공부는 4월 10일 신규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을 발표하여 외국 기관투자자의 투자 한도¹²⁾를 명확히 설정하고, 외국인이 벤처캐피탈 투자 시 제3자로부터 구매하거나 개인 계약이 가능하도록 함.
 - 인도 정부는 만성적인 재정적자 해소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금융서비스 부문 및 서비스, 제조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 개선을 통한 자금 유입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 금융기관들은 인프라, IT 등 인도 정부의 투자 유도 부문을 파악하여 잠재고객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현지 기업 대상 마케팅 강화를 통한 은행영업 현지화

- 국내 은행들은 영국, 미국 등 외국계 은행들에 비해 인도 금융시장에 진출이 늦었고, 지점 수 등 규모 또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으므로 현지 마케팅 강화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시장 확보가 절실함.
 - 현재 국내 은행들은 인도에 진출해 있는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두산중공업, 포스코, CJ제약 등 우리 기업들을 주 고객으로 자금조달, 외화송금 및 기업 금융업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12) 개별 외국인 기관투자 금액이 총 자본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개별 외국인 기관투자 금액의 총합이 총 자본의 24%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향후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24% 이상 투자할 수 있도록 함.



- 추후 우리 기업들과 연결된 인도 현지 기업들로 거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현지 매니저 활용 등을 통한 인도 현지 기업들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정보 수집과 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져야 함.

작성 : 국별조사실

조사역 이순재 (3779-5705)

soonjaelee@koreaexim.go.kr